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정 규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경찰공무원의 외상사건 유형과  
PTSD 증상의 관계  
: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조절효과

201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김 자 혜

경찰공무원의 외상사건 유형과  
PTSD 증상의 관계  
: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조절효과

김 정 규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김 자 혜

# 인 준 서

김자혜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감사의 글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중요한 순간이 있다. 나는 2004년 김정규 교수님을 학부 집단치료 시간에 만나지 못했다면 나의 발걸음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수님의 학자로서의 면모 뿐 아니라 인간적인 유유함과 진솔한 모습은 내게 늘 어느 등불보다 밝게 느껴졌었다. 내가 선택한 임상심리학자로서의 길 위에 첫마음이 되어주시고 이끌어주신 교수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첫마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 늘 새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는 말을 기억하며 늘 배움과 믿음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교수님의 마음에 보답하고 싶다. 중요한 시기에 상담자로서 나를 맞이해주셨던 이영이 선생님, 김금운 선생님, 이정민 선생님, 항상 앞서가며 마음을 다해 도움을 주었던 선배 미란이, 나란히 같은 시기를 걸어가며 지치고 힘들 때, 그리고 즐겁고 기쁜 순간을 함께 나누었던 박주연 선생님과 박사과정의 김지양 선생님, 동기 신영, 주화, 지혜, 소영, 서현, 그리고 보람이와 후배 진경이에게 고마움과 따뜻한 마음을 전한다. 어느 자리에 있든 소중한 배움을 함께한 기억들이 앞으로의 시간을 격려하고 응원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마지막으로,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엄마와 언니 나나미에게 고맙다는 말,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아픔도 기쁨도 이 두 사람과 함께 배웠고, 그것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더 많이 웃게 해주고, 더 많이 사랑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대학원 2년 동안 내가 누릴 수 있었던 모든 소중한 순간들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2011년 12월 겨울 김 자 혜

## 논문개요

본 연구는 국내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외상사건의 유형과 PTSD 증상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외상사건에 따른 PTSD 증상에서 대처양식의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알아 보고자 하였다. 450명의 현직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외상사건과 PTSD 증상 및 대처양식을 측정하기 위해 외상성 사건 경험 척도, 사건충격척도 개정판(IES-R), 스트레스 대처양식 척도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외상사건의 유형과 PTSD 증상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대처양식의 조절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직접 외상사건과 간접 외상사건은 PTSD 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직접 외상사건보다 간접 외상사건이 PTSD 증상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둘째, 외상사건 정도에 따른 PTSD 증상에서 문제중심적, 정서중심적, 역기능적 대처양식의 조절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역기능적 대처를 많이 사용할수록 PTSD 증상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주효과만이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공무원의 외상사건 유형의 정도에 따라 PTSD 증상에 영향을 주며, 특히 경찰공무원의 PTSD 증상 연구에 있어서 간접 외상사건 경험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였다. 또한 PTSD 증상의 심리사회적 모형인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토대로 한 경찰공무원의 외상사건 경험과 대처양식간의 관계 모형에서 대처양식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점은 기존의 이론적 모델과 상이한 결과로 다양한 가설들을 제안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목 차

## 논문개요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2. 연구문제 및 가설 ..... 5

### II. 이론적 배경

- 1. 외상사건 ..... 6
  - 1) 외상사건의 개념 ..... 6
  - 2) 외상사건의 유형 ..... 7
- 2.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 1) PTSD의 진단기준에 대한 논의 ..... 9
  - 2) 경찰공무원의 PTSD ..... 10
- 3. 스트레스 대처양식 ..... 12
  - 1)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개념 ..... 12
  - 2) 경찰공무원의 PTSD와 스트레스 대처양식 ..... 14

###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 1. 연구 설계 ..... 17
- 2. 연구 대상 ..... 18
- 3. 측정 도구 ..... 19
  - 1) 외상성 사건 경험 척도 ..... 19
  - 2) 사건충격척도 ..... 20

3) 스트레스 대처양식 .....	21
4. 통계처리 및 자료분석 .....	23

#### IV.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5
2. 주요 변수의 특성 .....	26
1) 대상자의 외상사건 유형에 대한 기술통계 .....	26
2)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대한 기술통계 .....	29
3)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기술통계 .....	31
3.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	32
4. 외상사건의 유형이 PTSD 증상에 미치는 영향 .....	34
5. 외상사건과 PTSD 증상에서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조절효과 .....	35

#### V. 논의 및 제언

1. 결과 및 논의 .....	40
2. 연구의 제한점 및 의의 .....	46

#### 참고문헌

#### ABSTRACT

#### 부록

## 표 목 차

<표 1> 한국어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IES-R) 문항과 신뢰도 .....	21
<표 2> 스트레스 대처양식(The Brief COPE) 문항과 신뢰도 .....	22
<표 3>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5
<표 4> 외상사건 경험 유형에 대한 기술통계 .....	27
<표 5> 외상사건의 유형에 대한 빈도분석 .....	28
<표 6>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기술통계 .....	30
<표 7>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기술통계 .....	31
<표 8>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집단의 빈도분석 .....	32
<표 9>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	33
<표 10> 외상사건 유형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 .....	34
<표 11> 외상사건 경험 정도에 대한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의 조절효과 .....	36
<표 12> 외상사건 경험 정도에 대한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의 조절효과 .....	37
<표 13> 외상사건 경험 정도에 대한 역기능적 대처양식의 조절효과 .....	38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경찰 직무는 항상 위험과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며, 경찰관들은 24시간 끊임없는 긴장상태로 근무해야 하는 마감 없는 업무의 연장선에 놓여있다. 현대 산업 사회의 복잡 다변화에 따른 범죄의 다양화 현상, 매년 폭증하는 강력사건들, 게다가 신속한 사건 해결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여망 등은 일선 경찰관들에게 극심한 직무 스트레스를 가져다준다. 이와 같은 업무적 특수성과 관련하여 경찰들은 시민들의 구조요청, 위기의 돌발, 언제 위험이 닥치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수시로 겪게 되는 범죄나 재난 사건의 목격 등으로 인한 높은 수준의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박성수, 2002). 최근 5년간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485,690건, 2006년 489,305건, 2007년 521,890건, 2008년 544,427건, 2009년 590,366건으로 매년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경찰청 홈페이지 통계자료, 2010). 즉, 경찰업무는 다른 직업과는 달리 안전과 관련하여 항상 잠재적 위험이 내재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Berg, 2000, 재인용).

Thomas-Riddle(1991)의 미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경찰관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외상사건으로 35.1%가 동료 경찰관의 죽음을 선택했고, 그 다음으로는 사체 목격, 죽은 아이를 본 것을 선택했다(이옥정, 2010, 재인용). 이처럼 일반적 인간 경험의 범위를 벗어난 죽음이나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초래하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들, 즉 외상사건에 경찰관들은 하루에도 여러번씩 노출되고 깊이 관여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전북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26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체 응답자의 52%가 업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공무원저널, 2006), 신성원(2007)의 경찰관 1,04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겪었던 사람들이 조사대상자의 38.8%를 차지하였다. 외국의 여러 연구들도 많은 경찰관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Gershon, Barocas, & Canton, 2009; Gersons, 1989; Leblanc et al., 2008; Patterson, 2003, 재인용).

외상사건(traumatic event)이란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또는 개인의 신체적 안녕을 위협하는 사건을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나는 것을 목격한 경우, 그리고 그로 인해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 등의 감정을 경험한 경우이다(DSM-IV, 1994).

Figley(1995)는 이러한 외상사건을 일차적 외상스트레스와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로 구분하였는데, 일차적 외상스트레스란 인간이 보통 경험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충격적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며,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란 다른 사람에 의해 경험된 외상사건에 대해 간접적으로 즉, 외상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혹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방법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생기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외상사건을 경험한 사람이나 고통 받는 사람을 도와주는데서 오는 스트레스로 이것은 극도의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하였다.

따라서 외상사건 경험은 그 심각성의 정도와 외상의 종류, 맥락에 따라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며 이차적 외상은 이전에 외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 사건을 견딘 사람과 지속적인 접촉으로 인하여 외상사건에 대한 반응과 유사한 특징을 획득하면서 발생하고(Gilbert, 1998),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겪는 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을 경험할 수 있고 그들의 증상이 전달될 수 있다(Catherall, 1999; Cosgrove, Brady, & Peck, 1995, 재인용)

경찰공무원의 경우 외상사건을 매우 다양한 상황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데 신체의 손상이나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등의 직접 외상사건과 동시에 자동차 충돌, 사망한 사람을 목격하는 것과 같은 잠재적인 간접 외상사건에 빈번히 노출되어 있다(Carlier, Lamberts, & Gerson, 2000; Patterson, 2000) 특히, 경찰공무원의 업무에 내재되어 있는 외상사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과각성, 불안, 인지적인 회피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의 발현과 연결될 수 있다(Carlier, Lamberts, & Gersons, 1997).

지금까지 해외에서는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연구가 다수 있었으나(Clair, 2006; Green, 2004; Marmar, et al., 2006; Stephans, 1997), 국내에서는 경찰관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진 반면(김구, 2005; 김순양·구종태·윤기찬, 2002; 이완구, 1995; 이환범·이수창, 2006)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의 관련있는 연구로는 신성원(2007)과 황인희(2009)의 연구에서 경찰공무원의 일상적·직업적 경험이 스트레스 증상 또는 소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지지 및 대처방식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으며, 외상사건의 경험이 신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 증상과 소진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유사한 연구로 군 병사들의 복무 중 경험한 외상적 사건 유형에 따른 분류를 시도하여 복합외상경험과 단순외상경험과 PTSD와의 관계를 밝히 바 있다.

기존의 PTSD 연구에서는 외상사건을 하나의 독립변수로 보고 PTSD와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 대부분인데, 경찰공무원의 외상사건과 PTSD와의 관계에서 직접 외상사건 뿐 아니라 간접 외상경험이 누적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한 PTSD 증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의 연장선에서 경찰공무원의 외상경험과 PTSD 증상

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한편, Bell(1995)은 외상사건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없다는 인지적 판단을 하게 되어 이전의 대처능력과는 상관없이 일상적 대처기술이 마비되어 현저한 심리적 충격과 고통 등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라고 정의하였다. 경찰공무원의 PTSD 역시 이러한 외상사건에 대한 경찰관의 여러 개인적,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동시에 받아 형성된다. 연구자들은 여러 요인들 중 사회적 지지와 대처양식에 특히 관심을 갖고 그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Leblanc et al., 2008; Marmar, et al., 2006, 재인용). 그 가운데 대처양식은 그 형태에 따라 완충작용 또는 역완충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blanc et al., 2008; Patterson, 2003). 반면 청소년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연구(안무옥, 2007)에서는 회피 대처방식이 외상경험과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는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이처럼 똑같은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 사람 일지라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나타내는데 있어서의 차이는 다른 여러 변수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러한 변수들과의 관계는 연구들마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가장 최근의 연구에서는(이옥정, 2010) 대처양식은 외상성 경험에 따른 PTSD 증상의 영향에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경찰공무원의 직접적인 외상 경험 뿐 아니라 간접적인 외상경험이 두드러지는 업무 특성을 고려한 PTSD 증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외상사건 경험을 직접 외상사건과 간접 외상사건으로 나누어 경찰공무원의 외상 유형과 PTSD 증상의 관계와, 경찰공무원의 외상사건에 따른 PTSD 증상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의 조절효과를 함께 살펴보려고 한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경찰공무원의 외상사건 경험의 유형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PTSD 증상은 어떠한가?

가설 1-1. 경찰공무원의 직접 외상사건은 PTSD 증상에 정적인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가설 1-2. 경찰공무원의 간접 외상사건은 PTSD 증상에 정적인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연구문제 2] 대처양식은 경찰공무원의 외상사건 경험에 따른 PTSD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인가?

가설 2-1. 경찰 공무원의 외상사건 경험 정도와 PTSD 증상간의 관계는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을 많이 사용할 수록 더 완화될 것이다.

가설 2-2. 경찰 공무원의 외상사건 경험 정도와 PTSD 증상간의 관계는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을 많이 사용할 수록 더 완화될 것이다.

가설 2-3. 경찰 공무원의 외상사건 경험 정도와 PTSD 증상간의 관계는 역기능적 대처양식을 많이 사용할 수록 더 심화될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외상사건

#### 1) 외상사건의 개념

외상사건(traumatic event)이란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또는 개인의 신체적 안녕을 위협하는 사건을 본인이 직접 경험했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것을 목격한 경우, 그리고 그로 인해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 등의 감정을 경험한 경우’를 말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외상경험, 즉 심리적 외상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 성인 남성에게 국한된 것이었으나, 1980년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 PTSD)가 공식적인 정신 장애로 DSM-III에 포함되었다(안무옥 외, 2007). 이후에 다양한 사회적 계층과 연령, 성별 그리고 외상적 사건의 유형들에 따른 체계적인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외상사건은 DSM-III-R에서 일반적 인간 경험의 범위를 넘어선 사건 혹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현저하게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건에서(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7: 이하 APA) 개인이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 실제 죽음 또는 죽음의 위협을 주는 심각한 상해나 신체적 안녕에 위협을 주는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하는 것을 포함하며 극심한 불안, 무력감 혹은 공포의 반응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DSM-IV(APA, 1994)에서 재정의 되었다. 그리고 DSM-IV-TR에서는 가족 혹은 다른 가까운 사람에 의해 경험되는 폭력적인 죽음, 심각한 상해 또는 죽음의 위협을 포함하고 있다(APA, 2000).

Tedeschi와 Calhoun(1995)은 무엇이 사건들을 외상적인 것으로 만드는지

에 대해 6가지 외상적 사건이 갖는 특징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사건은 외상적일 수 있으며(McCann & Pearlman, 1990) 둘째, 통제할 수 없다고 지각하는 것(Guerra & Slaby, 1989)과 셋째, 일상적인 경험이 아니라는 것이다(McCann & Pearlman, 1990). 넷째로는, 사건으로 인한 문제들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수록 그것은 외상적인 사건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Davison, Fleming & Baum, 1986). 다섯째는, 사건의 경험이 비난을 끌어들이는 점이다. 사건 발생에 대해 가해지는 비난이 자신에게 향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타인에게 향할 수도 있는데, 타인에게 향할 때 더욱 큰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Downey, Silver & Wortman, 1990). 마지막으로, 외상적 사건은 인생 주기의 각 시기마다 다양하게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 2) 외상사건의 유형

DSM-IV에 와서 제시된 외상에 대한 정의는 외상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 외상적 사건인지 아닌지를 분류하거나 정의내리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 즉, 어떤 사건 유형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외상적 사건이라고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외상 사건을 정의내릴 때 좀 더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 준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이지영, 2009). Allen(2005)은 외상적 사건의 유형을 일회성 외상 대 반복적 외상, 자연 외상 대 인간 발생적 외상(예: 전쟁, 범죄, 강간, 가정 폭력, 아동학대), 대인관계 내 발생한 외상 대 대인관계 이외에서 발생한 외상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외상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주목해보면 외상적 사건의 유형은 위와 같은 범주로 구분이 될 수 있다. 외상관련 선행 연구들에서 많이 다루어졌던 구체적인 외상적 사건의 유형은 전쟁(전쟁에 참전, 전쟁지에서 생활), 강제 수감(인질이 된 경험, 납치당한 경험), 자연재해

(홍수, 지진, 태풍, 해일), 화재(화재, 폭발), 교통사고(자동차, 비행기, 기차 사고 등), 건축물 붕괴(건물붕괴, 교량붕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이즈, 암), 신체적 폭력(범죄, 총기사고, 배우자나 부모 또는 또래부터의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경험), 성적 폭력, 정서적 폭력 등이 있었다. 특히 이러한 외상사건 가운데 인간에 의해 발생한 사고를 겪은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고통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가 있었다(Slaikau, 1990, 재인용).

또한 Figley(1995)는 일차적 외상스트레스와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로 구분하였는데, 일차적 외상스트레스란 인간이 보통 경험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충격적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다. 가정폭력이나 전쟁, 강간과 같은 사건으로 인하여 한 개인이 심각한 고통을 겪는 것으로써 이러한 외상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공포, 불안, 긴장과 같은 부정적인 반응과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란 다른 사람에 의해 경험된 외상사건에 대해 간접적으로 즉, 외상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혹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방법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생기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외상사건을 경험한 사람이나 고통 받는 사람을 도와주는데서 오는 스트레스로 이것은 극도의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하였다.

요약하면, 이차적 외상은 이전에 외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 사건을 견딘 사람과 지속적인 접촉으로 인하여 외상사건에 대한 반응과 유사한 특징을 획득하면서 발생하며(Gilbert, 1998),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겪는 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을 경험할 수 있고 그들의 증상이 전달될 수 있다(Catherall, 1999; Cosgrove, Brady, & Peck, 1995,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경찰공무원의 외상경험을 자기와 관련된 직접 외상사건과 타인의 외상경험에 대한 영향으로 비롯된 간접

외상사건으로 분류하여 PTSD 증상과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 2.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 1) PTSD의 진단 기준에 대한 논의

외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정신적·신체적 증상들을 총체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 PTSD)라고 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 기준으로는 미국 심리학회 진단 및 통계 위원회가 1994년에 발간한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4판’이 사용된다. 이전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의 원인을 개인 내적인 요인으로 인식하였으나, 1970년대와 80년대에 외상 관련 장애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면서, 결국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으로 스트레스 유발자의 외상적 본질이 우선된다는 경험적 지지를 얻게 되었다(한국군사회복지학, 2009). 이후에 DSM-III-R(APA, 1987)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기술이 더 정교화 되어 ‘일상적인 인간의 경험 범위를 넘어선 사건들’로 한정되었고, 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부가되었다(이선미, 은현정, 1999, 재인용). 또한 외상과 유사하거나 외상을 상징하는 내부 혹은 외부 단서에 노출시 강한 심리적 고통 및 사건과 관련된 자극을 회피하는 증상을 추가하였다(신응섭, 채정민, 1996). DSM-IV(1994, APA)에는 진단기준 A의 외상사건을 개인 자신의 직접적인 외상 사건 뿐 아니라, 타인의 죽음, 상해, 신체건강을 위협하는 사건을 목격하고, 이러한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을 동반하는 경우로 확대되어 외상경험에 대한 개념이 확장되었다(이지영, 2007). 이러한 변화는 외상사건에 대한 대리적 외상(vicarious traumatization)이나 간접적인 외상경험도 PTSD로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외상사건 경험 후 나타나는 증상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 기준에 대한 기본을 제공하는 PTSD 증상과 일반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함께 나타나지만, 외상후 스트레스의 진단적 기준을 형성하는 데는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차적 증상들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이지영, 2007).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진단 기준에 소개된 증상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차적 증상으로도 고통받기 쉽다. 외상의 피해자들에게서 우울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며, 불안 역시 주요한 이차적 특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사건과 유사한 활동이나 상황에 대한 공포로 회피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회피는 대인관계를 방해하고, 부부갈등, 이혼, 실직 등을 초래한다. 그 밖의 이차적인 특징으로는 적응문제, 손상된 대인관계, 현저한 성적 흥미 상실, 생활방식의 변화 등이 나타날 수 있다(김순진 외, 2000)

## 2)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경찰공무원의 업무는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 중의 하나로 많은 연구에서 인용되어 왔고 그러한 스트레스는 정서적인 고통을 유발한다. 신체의 손상이나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등의 일차적 외상사건과 동시에 자동차 충돌, 사망한 사람을 목격하는 것과 같은 잠재적인 외상사건인 이차적 외상사건에 빈번히 노출되어 있다(Carlier, Lamberts, & Gersons, 2000; Patterson, 2000,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외상 사건에 대한 용어 정의의 혼란을 줄이고 명확한 뜻을 밝히기 위해 외상사건의 유형을 그 특성에 따라 직접 외상사건과 간접 외상사건으로 명명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신성원(2007)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 경찰관의 38.8%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지고 있고, 20% 정도가 부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희(2009)의 연구에 의하면 조사 경찰관의 12.7%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8.5%가 부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공무원의 업무에 내재되어 있는 외상사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과각성, 불안, 인지적인 회피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의 발현과 연결될 수 있다(Carlier, Lamberts, & Gersons, 1997). 경찰공무원의 업무에서 발생하는 외상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소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Brough, 2004, 재인용). Pendleton과 Kirsch(1989)은 경찰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위험한 사건들로 인해 다른 직업보다 높은 수준의 소진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지속적인 심리적 고통인 만성적인 PTSD는 작업생산성의 감소(Kessler & Frank, 1997), 좋지 않은 신체적 건강(Deykin et al., 2001), 그리고 다른 심리적인 장애와의 높은 공존병리(Brelau, 2001, 재인용)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찰관들은 다수의 외상사건에 반복적으로 자주 노출됨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경찰관은 그런 자극에 익숙해져서 외상사건들로부터 정신적인 영향을 덜 받는다고 생각한다(Clair, 2006). 그러나 반대로 경험한 외상사건의 수가 증가할수록, 다시 말하면 외상사건의 누적된 영향은 더 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는 연구결과들도 있다(Clair, 2006; Stephens & Long, 2000).

경찰관은 고유한 업무 특성상 총기 사용뿐 아니라 대규모 시위, 진압, 대치 상황에서 그 위험성은 더 증가되지만, 교통 법규 위반 차량 단속, 가정폭력, 현장 출동 등 일상에서 빈번하게 수행하는 업무 또한 항상 돌발성과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으며(이옥정, 2010), 경찰관에게는 위기의 상황이 경고 없이 일상 업무 가운데에서 발생할 수 있다(Clair, 2006). Violanti(1996)은 경찰관들과 군인들을 비교하며, 경찰관들이 ‘평화시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묘사하였다. 경찰관의 외상사건은 다른 사람들의 외상사건같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무 경력 내내 다수의 외상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된다는 점에

서 보다 높은 위기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Marshall, 2006, 재 인용).

따라서 경찰공무원이 겪는 외상사건의 유형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이런 다수의 외상사건들의 축적된 영향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3. 스트레스 대처양식

#### 1)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개념

대처양식은 “개인의 자원을 청구하거나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특수한 외적·내적 요구를 다스리기 위하여 부단히 변화하는 인지적·행동적 노력”이라고 정의된다(Lazarus & Folkman, 1984). 인간은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해 나간다. Lazarus(1974)는 인간을 스트레스를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내적 기체인 인지를 사용하여 스트레스 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다루어 나가는 적극적인 존재로 보았다. 그러므로 스트레스에 직면해서 개인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평가 해석하느냐, 그리고 어떤 능력과 개인적 자원을 가지고 대처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도 달라진다(정선자, 1998).

Lazarus & Folkman(1984)은 대처양식을 정서중심적 대처양식과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으로 구분하며 스트레스 자체보다 대처(coping)가 효과적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개인의 적응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정서중심적 대처란, 회피, 최소화, 거리두기, 선택적 주의, 긍정적 비교, 부정적 사건에서 억지로 긍정적 가치를 찾아내기와 같은 기법들을 통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고통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나 행동에 초점을 둔다. 문제중심적 대처란 인지적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정보수집, 목표설정과

등과 같은 적극적 기법을 통하여, 자신이 직면한 스트레스 상황이나 문제 자체를 변화시키거나 관리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나 행동에 중점을 둔다. 일반적으로 위해적, 위협적, 또는 도전적인 환경 조건을 수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평가를 하게 될 때는 정서중심적 대처를 할 가능성이 더 큰 반면, 그런 조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할 때는 문제중심적 대처를 할 가능성이 더 크다.

최근 들어서 대처양식은 스트레스원과 정신건강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 특히 스트레스만으로 우울이라는 정서적 문제를 잘 설명할 수 없다고 보고되면서 이 둘의 관계를 중재하는 변수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대처와 우울과의 관계가 많이 연구되었다(조민영, 2005).

Lazarus(1981)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 정서중심적 대처 또는 회피적 대처를 적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회피적 대처를 많이 하는 사람보다 신체적, 심리적으로 적응을 더 잘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정서중심적 또는 회피적 대처는 일시적인 스트레스 극복에 효과적일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자기기만 및 현실 왜곡을 대표하는 반응이므로 상습적인 사용은 차후의 스트레스 극복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Holaham & Moos(1990)는 종단연구에서도 회피 대처를 적게 사용하고 적극적 대처의 사용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스트레스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문제 중심적 대처는 정서 혼란을 줄이는 것으로 적응에 효과적이거나, 정서 중심적 대처는 역설적으로 혼란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른 연구들에서는 정서 중심적 대처가 적응적이라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으며(이숙자, 1993), 문제 중심적 대처는 정서 혼란에는 별로 영향이 없으나 이후의 문제를 줄이는 데는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하였다(Menaham, 1982). 김정희(1987)의 연구에서는 과제 및 대인관련 스트레스

상황 모두에서 적극적(문제중심적 대처 포함)대처가 효율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연구 결과에 있어서 일관성을 보이지 않으며 문제 중심적 대처와 정서 중심적 대처 어느 한 쪽이 더 우월한 대처양식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두 가지 대처양식에 따른 영향력이 다양하게 제시된 점은 외상사건을 경험한 내용과 개인의 자원에 따라 적응적인 대처 양식에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일관성을 보이지 않지만, 대체로 회피적 대처보다는 적극적 대처가 효율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특별한 대처는 정신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 둘 다를 촉진시키거나 방해할 수 있으므로(suls et al., 1985; Clark et al., 1989; Ehdler et al., 1990), 스트레스원에 대한 개인의 특별한 대처는 개인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조절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 2) 경찰공무원의 PTSD와 스트레스 대처양식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대처방식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 왔다(Aaron, 2000; Burke, 1993; Patterson, 2003; Thomson et al, 2005). 미국 경찰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업에 발생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반응으로 형식으로 행동하거나 직업을 바꾸려는 등의 그 문제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발견되었다(Billings & Moos, 1981; Pearlin & Schooler, 1978; Aldwin & Revenson, 1987). 문제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르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볼 때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었다(Aldwin & Revenson, 1987; Billings & moos, 1981; Hart, Wearing, & Hdadey, 1995; Violanti, 1992). 적절한 대처방식은 하나의 대처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개인의 자원에 알맞은 대처방식을 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황인희, 2009).

경찰관의 대처양식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옥정(2010)의 연구에서 외상적 사건을 경험한 경찰관들이 그렇지 않은 경찰관들보다 회피의 역기능적 대처양식을 더 사용하였고, PTSD 증상으로의 발전되는데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보였다고 밝히고 있다. Tidwell(2005)의 연구에 따르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경찰관들이 그렇지 않은 경찰관들보다 회피의 역기능적 대처양식을 두 배 더 사용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대처방식에 따라 경찰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Leblanc, et al, 2008). 회피중심의 역기능적 대처양식을 사용하는 경찰관들은 침습과 각성이란 외상증상으로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나타났으며, 문제 중심적 대처가 스트레스에 대해 더 적응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Marmar, et al.(2006)의 연구에서는 오히려 문제해결 대처양식을 사용한 경찰관이 더 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였으며, 유사한 국내 연구로 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유지현(2006)의 연구, 그리고 직무수행 중 사상사고를 경험한 지하철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주성아(2009)의 연구에서도 이와 같이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이 PTSD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Patterson(2003)의 연구에 따르면 문제 중심적 대처는 직무 관련 사건 경험이 경찰관의 심리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역완충 한다고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직무 관련 사건을 접하는데 해결방법이 없으면 스트레스가 더욱 증가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이옥정, 2010, 재인용). 반면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대처양식은 직무관련 사건 경험과 스트레스의 관계를 완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처양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일관된 연구결과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경찰공무원들이 다양한 대처양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상사건에 대한 각 대처양식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경찰공무원의 외상사건 경험을 고찰하고 그에 대한

개인의 대처양식 가운데 문제중심적 대처, 정서중심적 대처, 역기능적 대처가  
외상사건 경험과 상호작용하면서 PTSD 증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조  
절효과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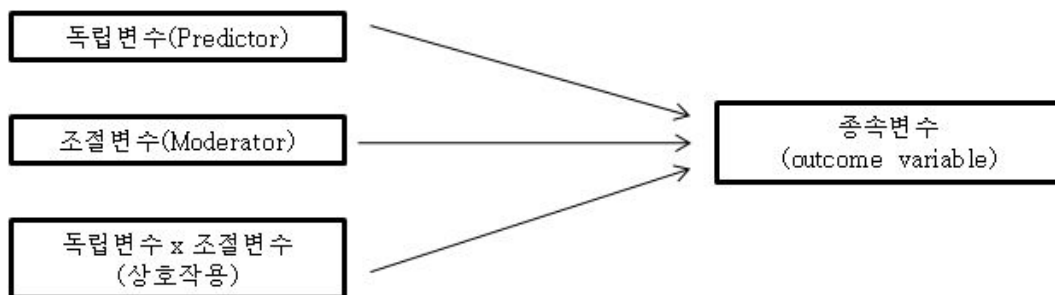
#### 1.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 분석틀은 Baron과 Kenny(1986)의 Moderator model(조절모델)에 근거하였다. PTSD 증상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에서 중재(intervening) 역할을 하는 변수로는 매개(mediator)변수와 조절(moderate)변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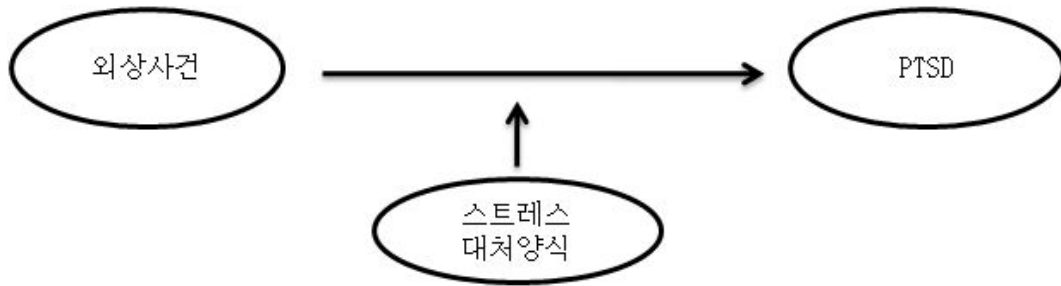
이 두 변수는 개념적·통념적으로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매개(mediator)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관계유발의 역할(causal role)을 한다. 다시 말해서 독립변수는 매개변수를 통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조절(moderator)변수는 두 변수 사이에서 관계유발은 하지 않지만, 관계의 방향이나 정도에 영향을 준다. 조절변수는 주효과를 위해서는 독립변수로, 상호작용효과를 위해서는 조절변수로서 투입된다.

이 두 변수에 대한 개념을 근거로 Baron과 Kenny(1986)가 구성한 Moderator model은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Moderator model에 근거하여, 국내 경찰관의 외상 사건의 유형에 따른 PTSD 증상의 관계에서 대처양식의 조절효과를 아래와 같이 설정해 보았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외상사건에 노출된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알아보기 위해 표집 대상은 경찰공무원으로 설문 대상은 경기도 경찰공무원 4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3. 측정 도구

#### 1) 외상성 사건 경험 척도

본 연구에서 외상사건은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기 힘든, 경찰공무원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며 정신적으로 충격을 준 사건으로 정의한다. 또한 직접 외상사건은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으로 정의하고 간접 외상사건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외상성 사건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외상사건을 측정하기 위해 신성원(2007)이 번안하고 한국 경찰실정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한 Thomas-Riddle(1999)의 직무 사건 목록(List of Work Events)을 사용한다. 이는 신성원(2007)이 번안하여 수정된 목록은 총 2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를 이옥정(2010)이 한국 경찰 현실에 맞는 한 개의 문항을 추가하여 수정한 목록의 문항수 23개로 신성원(2007)의 목록 문항수와 동일하며, 이 목록은 경찰관이 직무 수행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직접 외상성 사건 9문항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간접 외상성 사건 14문항으로 구성된다. 원래 정신적 충격의 정도를 1-10까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본 연구에서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수정하여 측정하며, 신성원(2007)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6으로 나타났다. 직접 외상사건 문항 9개와 간접 외상사건 문항 14개를 각각 외상사건 경험 유무에 따른 주관적 스트레스의 정도를 합하여 외상사건을 측정한다. 문항자체에서 제시하는 외상사건의 경중은 경찰공무원 개인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이를 외상사건으로 경험했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로써 직접, 간접 외상성 사건의 누적된 영향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Clair, 2006).

## 2) 사건충격척도 개정판

본 연구에서는 경찰관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외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정신적·신체적 증상들로 정의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어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IES-R-K)을 사용하였다. 사건충격척도(Impact of Event Scale - Revised : IES-R)는 1979년 Horowitz가 개발한 외상 관련 증상을 자기보고식으로 작성하는 척도로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1997년 Weiss와 Marmar에 의해 IES의 수정판인 IES-R이 개발되었으며, 일본, 프랑스, 중국, 독일 등 전 세계에서 표준화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은현정 외, 2005). 우리나라에서는 은현정 외(2005)가 IES-R을 번안하고 수정하여 한국어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IES-R-K)을 개발했다.

IES-R-K는 총 22개의 문항으로, 과각성(6문항), 회피(8문항), 침습(8문항)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문항들은 DSM-IV에서 제시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17개 증상으로 구성된다. 경험한 외상성 사건에 대해서 조사대상자가 경험한 증상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없다'(1)에서부터 '자주 있다'(5)까지 기입하게 되어있다. 원래 척도는 지난 일주일간 경험한 증상에 대해서 기입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DSM-IV에서 제시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기준에 의하면 증상의 지속기간이 1개월 이상일 때를 PTSD로 진단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1개월간 경험한 증상에 대해서 기입하도록 하였다(APA, 1994; 이옥정, 2010). 또한 기존의 경찰 외상후 스트레스 관련 연구(신성원, 1007; 황인희, 2009)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경험한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그것이 현재 경찰관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난 1개월간이라는 기간을 설정하여 현재, 즉 최근의 경찰관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전체 문항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후 스트레스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24/25점이 완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부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구분

하는 절단점이고, 17/18점이 부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정상인을 구분하는 절단점이다(은현정 외, 2005). 본 연구에서는 절단점을 사용하지 않는다.

은현정 외(2005)의 연구에 따르면, IES-R은 CAPS, BDI, STAI-I,II, MMPI-PTSD 척도와 높은 준거 타당도 및 공준 타당도를 보이며,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3으로 나타났다. 이옥정(2010) 연구에서 사용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척도의 신뢰도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한국어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IES-R) 문항과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Cronbach's $\alpha$ )	
과각성	4, 10, 15, 18, 19, 21	6	.899	.957
회피	5, 7, 8, 11, 12, 13, 17, 22	8	.877	
침습	1, 2, 3, 6, 9, 14, 16, 20	8	.899	

#### 4) 스트레스 대처양식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양식을 스트레스적 상황을 다스리기 위한 개인의 인지적 및 행동적 노력으로 정의하며,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 후 경찰관들의 일반적인 대처양식을 측정하기 위해 주성아(2009)가 번안한 Carver(1997)의 The Brief COPE 척도를 사용하였다.

The Brief COPE는 Carver가 기존에 본인이 개발한 COPE 척도(Carver et al., 1989)의 60문항을 줄여서 총 14개 항목, 28문항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문제중심적 대처, 정서중심적 대처, 역기능적 대처의 3개 하위항목으로 구성된다(Carver, 1997). 조사대상자가 스트레스 대처양식을 사용하는 정도를 4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사용 안함'(1)에서부터 '많이 사용'(4)까지 응답하게 되어 있다. 각 하위항목의 문항 점수들을 합산하는 방식을 취하며, 점수

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 노력을 많이 하고, 해당 하위항목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성아(2009)의 연구에 따르면, The Brief COPE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01로 나타났으며, 하위항목인 문제중심적, 정서중심적, 역기능적 대처의 신뢰도는 각각 .849, .816, .82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트레스 대처양식 척도의 신뢰도는 <표2>에 제시되어 있다.

<표2> 스트레스 대처양식(The Brief COPE) 문항과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Cronbach's $\alpha$ )	
문제중심적 대처	2, 4, 12, 15, 16, 17	6	.849	.931
정서중심적 대처	1, 3, 7, 10, 13, 14, 23, 26, 27, 28	10	.816	
역기능적 대처	5, 6, 8, 9, 11, 18, 19, 20, 21, 22, 24, 25	12	.824	

#### 4. 통계처리 및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Statistics 1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학적 변인과 외상사건 경험의 유형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등 기술통계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둘째, 외상사건의 유형이 PTSD 증상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할 것이다.

셋째, 스트레스대처가 외상사건과 PTSD 증상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조절변인인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외상사건이 PTSD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Baron & Kenny(1986)의 위계적 중다회기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의 영향을 통제된 후 조절변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1단계 변인과 함께 조절변인을 투입한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통제된 후,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변인(독립변인 $\times$ 조절변인)을 투입한다. 즉,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 조절변인,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 조절변인, 독립변인 $\times$ 조절변인을 결과변인에 회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조절회귀분석의 통계모델에서는 반드시 상호작용변인과 함께 상호작용변인을 구성하는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포함해야 한다. 여기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려면 3단계에서 상호작용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야 한다. 즉, 3단계로 상호작용변인이 추가적으로 투입된 회귀모형에서 결과변인에 대한 회귀모형의 설명력 변화가 유의한가에 따라 조절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Stone & Hollenbeck, 1989, 재인용).

## IV.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외상사건의 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사건충격정도, 대처양식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를 먼저 제시하고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참가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남자가 400명(90.7%), 여자가 41명(9.3%)이었고, 연령은 20대(19.2%), 30대(40.1%), 40대(27.75%), 50대 이상(12.9%)이었다. 현 근무부서는 지구대·파출소(53.5%)가 가장 많았고, 지방경찰청·경찰서(15.8%), 과학수사(14%), 형사·수사(11.7%)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는 기혼이 70%, 미혼이 28.8%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대졸이 52.9%, 고졸이 29.7%의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IES-R-K로 측정된 PTSD 증상은 약한 정도(62.5%), 중간정도(27.2%), 심한 정도(10.3%)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400	90.7
	여성	41	9.3
연령	20대	82	19.2
	30대	171	40.1
	40대	118	27.7
	50대이상	55	12.9

	과학수사	62	14
	형사·수사	52	11.7
	지구대·파출소	237	53.5
현 근무부서	경찰청·경찰서(내근)	70	15.8
	교통사고조사(외근)	11	2.5
	기타	11	2.5
	5년 이하	163	36.6
	6-10년	71	16
근무기간	11-15년	68	15.3
	16-20년	56	12.5
	21년 이상	87	19.6
	매우 건강	96	21.7
	대체로 건강	218	49.2
건강상태	보통	103	23.3
	약간의 질병 보유	26	5.9
	미혼	126	28.4
결혼여부	기혼	310	70
	기타	7	1.6
	고졸	132	29.7
	전문대졸	61	13.7
학력	대졸	235	52.9
	대학원졸	15	3.4
	22 ≤ IES ≤ 42(저)	278	62.5
PTSD 증상	43 ≤ IES ≤ 59(중)	121	27.2
	60 ≤ IES ≤ 88(고)	46	10.3

---

## 2. 주요 변수의 특성

### 1) 대상자의 외상사건 유형에 대한 기술통계

경찰공무원의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상사건의 목록을 외상의 유형에 따라 직접 외상사건과 간접 외상사건으로 제시하고 연구 대상자가 자신이 경험한 외상사건 유무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를 응답한 결과이다. 전체 조사대상자가 재직기간 중 경험한 직접 외상사건의 평균은 3.37이며, 0부터 15까지 분포하고 있다. 간접 외상사건의 평균은 8.25이며, 0부터 17까지 분포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경찰관들은 다양한 외상사건 경험 가운데 직접 외상사건보다 간접 외상사건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사건에 대해 최대 5점의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는데, 조사대상자는 직접 외상사건에 대한 스트레스가 평균적으로 16.98이며, 간접 외상사건은 34.66으로 나타나, 경찰관의 외상사건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가 간접 외상사건에서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외상사건 경험 유형에 대한 기술통계

변수	평균	평균/ 문항수	표준편차	범위(min~max)
직접 외상사건의 개수 (9문항)	3.37	0.37	2.82	0~15
간접 외상사건의 개수 (14문항)	8.25	0.59	4.02	0~17
직접 외상사건의 스트레스	16.98	1.89	7.48	9~43
간접 외상사건의 스트레스	34.66	2.48	12.56	14~70

분석 대상자 445명이 응답한 각 외상경험의 유형에 따른 분포는 <표 5>과 같다. 직접 외상사건 가운데 경찰관이 직무상 가장 많이 경험한 사건은 고속의 차량 추격전으로 273명(61.3%)이 경험하였다. 두 번째로 많이 경험한 사건은 근무 중 타인에게 충격을 제외한 물리적 행사로 265명(59.6%)이 경험하였으며, 세 번째로는 타인에 의한 치열한 물리적 충돌이 241명(54.2%)로 나타났다. 간접 외상사건 가운데서는 폭행당한 사람의 목격이

410명(92.1%)으로 가장 높았으며, 근무 중 사체(자살, 변사)의 목격이 389명(87.4%), 근무 중 심각하게 부상당한 사람의 목격이 337명(75.7%) 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찰관이 직무상 경험하는 사건중 가장 정신적 스트레스가 큰 외상사건은 근무 중 사체(자살, 변사)의 목격으로 평균이 3.28이며, 두 번째로는 폭행당한 사람의 목격으로 평균이 3.24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스트레스가 큰 사건은 근무 중 심각한 부상당한 사람을 목격한 것으로 평균이 2.88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경찰관이 경험하는 외상사건의 유형이 간접 외상사건에서 더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정도 또한 직접 외상사건보다 간접 외상사건에 따른 스트레스의 정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외상사건의 유형에 대한 빈도분석

외상사건의 유형	경험 빈도	비율	스트레스 정도
<b>직접 외상사건</b>			
치열한 물리적 충돌(타인이 나에게 총기, 흉기를 겨눔)	241	<b>54.2%</b>	2.35
근무 중 타인에게 총격 및 총기를 겨눔	102	22.9%	1.52
근무 중 타인에게 총기를 제외한 물리력 행사	265	<b>59.6%</b>	2.38
근무 중 흉기에 의한 부상	101	22.7%	1.49
근무 중 흉기에 의하지 않은 부상	120	27.0%	1.66
자신, 가족에 대한 협박 경험	127	28.5%	1.70
고속의 차량 추격전	273	<b>61.3%</b>	2.53
위험한 영장의 집행	135	30.3%	1.64
근무 중 차량사고(운전, 탑승 중) 경험	138	31.0%	1.78
<b>간접 외상사건</b>			
근무 중 동료경찰관의 사망	130	29.2%	1.74

근무 중 동료경찰관의 부상	276	62.0%	2.57
동료 경찰관의 자살	122	27.5%	1.71
동료가 아닌 경찰관의 부상	291	65.4%	2.53
근무 중 사체(자살, 변사 사건)의 목격	389	<b>87.4%</b>	<b>3.28</b>
근무 중 살해당한(타인에 의한 죽음) 사람 목격	256	57.5%	2.57
폭행당한 사람 목격	410	<b>92.1%</b>	<b>3.24</b>
강간당한 사람 목격	306	68.8%	2.71
납치당한 사람 목격	170	38.2%	1.91
성폭행 당한 어린이 목격	198	44.5%	2.17
학대받거나 방임된 어린이 목격	260	58.4%	2.45
근무 중 심각하게 부상당한 사람 목격	337	<b>75.7%</b>	<b>2.88</b>
자연재해(수해, 산불 등)에 대한 대응	281	63.1%	2.36
인재(비행기 추락, 건물 붕괴, 방화 등)에 대한 대응	244	54.8%	2.30

## 2)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대한 기술통계

<표 6>에서 하위항목별 스트레스 대처양식 수준을 보면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의 평균/문항수가 3.79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역기능적 대처양식으로 평균/문항수가 2.09, 그리고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은 평균/문항수가 1.75로 가장 낮은 수준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1부터 4까지의 4점 척도 중에서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의 각 문항별 평균 점수가 3.79라는 것은,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평균이 2.09인 역기능적 대처양식은 조금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을 가장 적게 사용했다. 이 세 가지의 하위항목은 구성하는 문항수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평균이 아닌 평균/문항수로 세 가지 대처양식을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의 10문항 중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 다른 측면에서 그 문제를 보는 것을 시도한다’가 평균 2.97, ‘다른 사람의 위안이나 이해를 받아들인다’, ‘그 일에서 무언가 좋은 측면을 찾아내려고 노력한다’가 평균 2.89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문제중심적 대처양식 6문항 중에서는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무언가에 노력을 집중한다’,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려 노력한다’가 각각 평균 3.02, 2.96으로 높게 나타났다. 역기능적 대처양식 12문항 중에서는 ‘그것에 대해 덜 생각하기 위해 영화를 보러가거나 TV 시청, 독서, 수면 등과 같이 무엇인가를 한다’, ‘마음을 분산시키기 위해 일을 하거나 다른 활동을 한다’가 각각 평균 2.60, 2.54로 높게 나타났다. Lazarus(1981)은 정서중심적 또는 회피적 대처는 일시적인 스트레스 극복에 효과적일 수는 있으나 본질적으로 자기기만 및 현실 왜곡을 대표하는 반응이므로 상습적인 사용은 차후 스트레스 극복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Holaham & Moos(1990)의 종단연구에서도 회피대처를 적게 사용하는 것이 스트레스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경찰관의 역기능적 대처양식 가운데 회피 문항에 대한 평균이 높은 바 장기적으로 볼 때, 회피적 대처양식은 개인이나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6>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기술통계**

변수	평균	평균 /문항수	표준편차	범위(min~max)
정서중심적 대처 (6문항)	22.72	3.79	3.85	11~33
문제중심적 대처 (10문항)	17.51	1.75	3.19	6~24
역기능적 대처 (12문항)	25.02	2.09	6.05	12~48

### 3)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기술통계

<표 7>에서 조사대상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을 살펴보면, 평균 39.16으로 나타났으며 0 ~ 87점의 범위를 나타냈다. 하위항목별 수준을 살펴보면 과거 장면으로의 회상, 꿈을 꾸는 등의 침습 증상이 평균/ 문항수가 1.84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로 외상사건과 관련된 생각과 감정, 행동을 피하는 회피 증상이 1.76, 그리고 과도한 경계, 과민성의 과각성 증상이 1.7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침습의 8문항 중에서 ‘다른 일로 인해 그 때 일이 생각났다’, ‘그 때의 일이 생각났고, 그때의 느낌도 되살아났다’가 각각 평균 2.09, 2.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회피의 8문항 중에서는 ‘그 일을 생각하거나 기억하게 되면서 흥분되었다’, ‘그 일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가 각각 평균 1.90, 1.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과각성의 6문항 중에서는 ‘짜증나고 화가 났다’, ‘내가 매우 조심하며 경계하고 있다고 느꼈다’가 각각 평균 2.08, 1.8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7>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기술통계

변수		평균	평균 /문항수	표준편차	범위(min~max)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22)		39.16	1.78	15.15	0~87
하위 항목	과각성 (6문항)	10.32	1.72	4.22	0~24
	회피 (8문항)	14.11	1.76	5.74	0~31
	침습 (8문항)	14.73	1.84	5.72	0~32

전체 조사대상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평균은 정상 범위( $22 \leq IES \leq$

42)에 속하였으나,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46명(10.3%)이 PTSD 고위험 수준 집단으로 분류되고 121명(27.2%)가 PTSD 위험수준 집단에 분류되므로 전체 조사대상자 중 167명(37.5%)이 PTSD 위험수준 이상의 증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경찰관 PTSD 선행 연구인 신성원(2007)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경찰관 중 38.8%가 PTSD 진단 집단에 속하였으며, 황인희(2009)의 연구에서는 12.73%가 PTSD 진단 집단에 속하였다. 모두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연구 간의 비율 차이는 조사대상 경찰관들의 근무부서 차이와 측정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의 경험기간(근무기간) 등의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상사건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지구대·파출소, 과학수사, 형사·수사와 같은 외근 부서 위주로 자료(전체 조사대상자의 79.2%)를 수집하였으며, 경험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의 측정기간을 무제한하지 않고, ‘지난 한달’로 제한하였다.

**<표 8>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집단의 빈도분석**

구분	빈도(명)	백분율(%)
PTSD 정상 수준 (22 ≤ IES ≤ 42)	278	62.5
PTSD 위험 수준 (43 ≤ IES ≤ 59)	121	27.2
PTSD 고위험 수준 (60 ≤ IES ≤ 88)	46	10.3
합계	445	100

### 3.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앞에서 제시된 연구모형에 따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설정된 변수들의 투입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통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0.8이상일 때 다중공선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표 9>의 결과를 살펴보면, 주요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모두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를 모두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함이 검증되었다.

<표 9>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정서중심	문제중심	역기능적	일차외상	이차외상	PTSD	외상사건
정서중심	1.00						
문제중심	.68**	1.00					
역기능적	.41**	.09	1.00				
일차외상	.13**	.09	.14**	1.00			
이차외상	.15**	.17**	.12*	.71**	1.00		
PTSD	.11*	.03	.32**	.50**	.57**	1.00	
외상사건	.16**	.15**	.13*	.88**	.96**	.58**	1.00

\*p<.05, \*\*p<.01

#### 4. 외상사건의 유형이 PTSD 증상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설 1-1] 경찰공무원의 직접 외상사건은 PTSD 증상에 정적인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연구가설 1-2] 경찰공무원의 간접 외상사건은 PTSD 증상에 정적인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위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외상사건 경험의 두 가지 유형인 직접 외상사건과 간접 외상사건을 각각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외상사건 유형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

		모델 1		
		B	S.E.	β
독립변수	직접 외상사건(A)	0.413	0.119	0.2**
	간접 외상사건(B)	0.505	0.069	0.424**
상수		14.457		
$R^2$		0.339		
$Adj R^2$		0.336		
$R^2$ 변화량		0.339**		
F		102.129**		

\* $p < .05$ , \*\* $p < .01$

모델 1은 경험한 직접 외상사건과 간접 외상사건의 경험이 독립변수로 투입된 모형으로, 모형적합도를 살펴보면 F 값은 102.129로  $p < .01$ 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 모델의 설명력은 33.6%로, 이는 모델 1에 포함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변량의 33.6%를 설명한다는 의미이다.

분석결과, 직접 외상사건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력 ( $\beta=.200$ )은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경험한 직접 외상사건이 많을수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심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간접 외상사건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력 ( $\beta=.424$ )은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경험한 간접 외상사건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클수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심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변수의 표준화 회귀계수를 비교하면 간접 외상 사건이 직접 외상사건보다 더 크므로, 직접 외상사건보다 간접 외상사건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 가설 1-1], [연구 가설 1-2]는 지지되었다.

## 5. 외상사건과 PTSD 증상에서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조절효과

외상사건 경험 정도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곱한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외상사건 경험 정도를 투입, 2단계에서 외상사건 경험 정도와 스트레스 대처양식을 투입하고 3단계에서 외상사건 경험정도과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상호작용항(외상사건 경험정도  $\times$  스트레스 대처양식)을 투입하여, 상호작용항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이때, 투입되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줄이기 위하여 각 변수에는 변수들의 평균값을 빼주는 센터링(centering)을 실시하였다(Aiken & West, 1991, 재인용).

[가설 2-1] 경찰 공무원의 외상사건 경험 정도와 PTSD 증상간의 관계는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을 많이 사용할 수록 더 완화될 것이다

위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외상사건 경험 정도와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외상사건 경험 정도에 대한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의 조절효과**

단계	예측변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B	$\beta$	$R^2$ 변화량	$R^2$	Adj $R^2$	F
1	외상사건 경험 정도	.473	.582	.339	.339	.337	204.3***
2	외상사건 경험 정도	.482	.593	.005	.343	.340	104.06
	문제중심적 대처	-.330	-.069				
3	외상사건 경험 x 문제중심적 대처	-1.123	-.072	.005	.348	.344	70.77

\*p<.05, \*\*p<.01, \*\*\*p<.001

<표 11>에서 제시된 분석결과, 1단계에서는 설명량이 .337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한 외상사건 경험 정도의 설명력은 33.7%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1). 2단계에서는 설명량이 .340(p<.093)으로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3단계에서 상호작용항에 대한 설명량은 .348(p<.08)로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의 조절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량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공무원의 외상사건 경험 정도와 PTSD 증상간의 관계는 문제중심

적 대처양식을 많이 사용할 수록 더 완화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기각한다.

[가설 2-2] 경찰 공무원의 외상사건 경험 정도와 PTSD 증상간의 관계는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을 많이 사용할 수록 더 완화될 것이다

<표 12> 외상사건 경험 정도에 대한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의 조절효과

단계	예측변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B	$\beta$	$R^2$ 변화량	$R^2$	Adj $R^2$	F
1	외상사건 경험 정도	.473	.582	.339	.339	.337	204.3***
2	외상사건 경험 정도	.471	.579	.000	.339	.336	102.1
	정서중심적 대처	.077	.020				
3	외상사건 경험 x 정서중심적 대처	.737	.047	.002	.341	.336	68.6

\*p<.05, \*\*p<.01, \*\*\*p<.001

<표 12>에서 제시된 분석결과, 1단계에서는 설명량이 .337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한 외상사건 경험 정도의 설명력은 33.7%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1). 2단계에서는 설명량이 .336(p≤.63)으로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3단계에서 상호작용항에 대한 설명량은 .336(p≤.24)로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의 조절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량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공무원의 외상사건 경험 정도와 PTSD 증상간의 관계는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을 많이 사용할 수록 더 완화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기각한다.

[가설 2-3] 경찰 공무원의 외상사건 경험 정도와 PTSD 증상간의 관계는 역

기능적 대처양식을 많이 사용할 수록 더 심화될 것이다

<표 13> 외상사건 경험 정도에 대한 역기능적 대처양식의 조절효과

단계	예측변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B	$\beta$	$R^2$ 변화량	$R^2$	Adj $R^2$	F
1	외상사건 경험 정도	.473	.582	.339	.339	.337	204.3***
2	외상사건 경험 정도	.445	.547	.073	.412	.409	139.3***
	역기능적 대처	.685	.273				
3	외상사건 경험 x 역기능적 대처	.340	.022	.000	.412	.408	92.81

\*p<.05, \*\*p<.01, \*\*\*p<.001

<표 13>에서 제시된 분석결과, 1단계에서는 설명량이 .337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한 외상사건 경험 정도의 설명력은 33.7%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1). 2단계에서는 설명량이 .409(p<.001)로 역기능적 대처양식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추가적으로 7%의 설명력을 유의미하게 나타내었다. 3단계에서 상호작용항에 대한 설명량은 .408(p≤.57)로 역기능적 대처양식의 조절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량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공무원의 외상사건 경험 정도와 PTSD 증상간의 관계는 역기능적 대처양식을 많이 사용할 수록 더 심화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기각한다.

[연구문제 2]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외상경험의 정도( $\beta = .582$ )가 p<.001 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상경험의 정도가 클수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심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절변수로서의 대처양식을 살펴보면, 여전히 역기능적 대처양식( $\beta = .273$ )만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기능적 대처양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심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문제 2]는 외상사건 경험 정도와 PTSD 증상의 관계에서 대처양식의 조절효과에 관한 것으로, 조절변수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곱한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외상경험 정도와 각 대처양식의 상호작용항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외상경험 정도에 대한 대처양식의 조절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 V. 논의 및 제언

### 1.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경찰관의 업무 특성상 살인, 강도, 폭력, 성폭력, 자살, 교통사고 등의 사건 현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경찰관 본인의 신체적 안녕을 위협하는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의 죽음, 상해, 신체 건강을 위협하는 사건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외상사건의 특성을 살펴보고, 외상사건의 유형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증상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외상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을 때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PTSD 증상의 강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전반적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이 직접 외상사건과 간접 외상사건은 PTSD 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므로 가설 1과 가설 2는 지지되었다. 경찰업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외상 사건의 빈도에 대한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외상사건은 근무 중에 폭행당한 사람을 목격하는 것으로 전체의 410명(92.1%)에 해당되었다. 두 번째로는 근무 중 사체(자살, 변사사건)의 목격에 대한 것으로 전체의 389명(87.4%)에 해당되었다. 이는 경찰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간접적으로 경험되는 외상사건에 의한 스트레스의 영향에 대해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간접 외상사건에 의한 외상스트레스는 직접적인 피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PTSD 증상에 대한 인식이 낮은 실정이다. 반면, 경찰공무원에 대한 심리사회적 개입이 활발한 외국의 경우에는 간접 외상사건에 노출될 수 있는 직업 종사자들에게 대한 스트레스 위기 개입 및 예방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황인희, 2009).

이에 더하여, 실제로 외상사건의 유형과 PTSD 증상간의 관계를 중다회귀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직접 외상사건이 PTSD 증상에 미치는 영향보다 간접 외상사건이 PTSD 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하여 살펴보았던 외상사건의 빈도에 따른 스트레스의 정도에 대한 기술 통계에서 간접 외상사건에 대한 스트레스의 정도가 더 높았던 점과 유사한 결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는 경찰공무원의 외상경험에 있어서 직접 외상사건의 경험보다 간접적으로 누적되어 경험하게 되는 간접 외상사건의 영향이 장기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에 더 위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경찰관은 업무 특성상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외상사건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인들보다 더 높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률을 보인다(APA, 1994; Dwyer, 2005; Gersons, 1989; 신성원, 2007; 황인희, 2009). 본 연구에서는 외상사건의 유형을 직접 외상사건과 간접 외상사건으로 구분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외상사건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경찰공무원의 누적된 간접 외상사건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심각성을 환기시켜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관에게는 위기의 상황이 경고없이 일상 업무 가운데서 발생할 수 있으며(Clair, 2006), 특히 경찰관의 외상성 사건을 “일반적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심리적으로 괴로운 사건”으로 규정하고(Blau,1994) 일반적인 외상사건과 그 특성을 구분하고자 시도하였다. Wells, Getman, & Blau(1988)은 경찰관의 외상성 사건을 4가지 요소로 규정하였는데 그 가운데 경찰관의 생명이나 신체적 안녕을 위협하는 사건 일차적 외상사건과 동료, 본인의 신체적 능력, 또는 본인의 지위에 대한 상실의 요소를 포함할 수 있는 이차적 외상사건을 서로 다른 요소로 구분하였다(Thomas-Riddle, 1999에서 재인용). 또한 Clair & Gersons(1994)는 본인의 안전이 위협당하는 사건에 참여하는 직접적인 외상성 사건과 타인의 안전이 위협에 처한 것을 목격하는 간접적인 외상성 사건으로 분류하여 첫 번째는 ‘매우 폭력적인

사건'으로 두 번째를 '매우 우울한 사건'으로 명명하여 분류하였다. 이처럼 경찰관이 경험하는 외상성 사건은 다른 전문직의 외상성 사건과는 구별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아울러 경찰관의 외상성 사건은 다른 사람들의 외상성 사건 같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근무 경력 내내 다수의 외상성 사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므로, 외상성 사건의 영향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경찰관의 외상성 사건의 유형을 따른 누적된 영향들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경찰공무원의 외상사건과 PTSD 증상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외상사건과 PTSD 증상 사이에서의 정서중심적 대처양식과 문제중심적 대처양식, 역기능적 대처양식에서 모두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역기능적 대처양식이 PTSD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효과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설정에서 Green & Wilson(1985)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심리사회적 모형으로서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psychosocial framework)을 기반으로 개인이 외상을 점차 동화시키고 다시 안정을 찾는 것은 개인이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는지의 개인적인 성격적 요인과 사건이 발생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는 환경적 요인에 달려있다는 개념적 모형에 근거하였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이러한 심리사회적 모형에 근거한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서 개인적 요인인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완충효과를 보이지 않은 점은 경찰공무원의 외상사건에 대한 개인의 대처양식의 효과가 일반적인 스트레스원에 대한 심리적 기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이 가능하다.

첫째로, Pearlin et al.(1981)에 따르면 사람들의 스트레스 정도는 스트레스 원인의 정도만으로는 적절하게 예측될 수 없으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에서 행동적, 인지적으로 다양하게 대처하여 어려운 상황을 변

화시키거나 그 부정적인 영향을 조절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Lazarus(1993)는 개인의 대처노력의 개념과 대처행동의 효과는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은 상황적인 요구들이 통제될 수 있다고 평가될 때 더 적응적으로 사용되는 반면에 정서중심적 대처양식은 그들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적응적이라고 언급했다. Weintraub(1989) 또한 적응적인 문제중심적 대처양식은 개인이 그 환경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을 때만, 그래서 그 문제를 직접 다룰 수 있을 때만 효과적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국내의 황인희(2009)의 연구에서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 요인과 소진 사이 간에 통제소재를 조절변수로 두어 완충 또는 촉진작용을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다. 황인희는(2009) 이러한 연구결과가 자신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추론하고 있으며, 통제밖의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외적인 개입을 통해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실제로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의 원인은 업무차원과 조직차원으로 나누는데(Paton et al., 2009), 이 두 가지 모두 개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며 경찰 업무의 예측 불확실성, 복잡성은 경찰관들이 그들의 행동과 반응들을 미리 예측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따라서 위의 주장들과 연구들이 말하듯이, 경찰공무원의 외상성 스트레스 원인이 통제 범위를 벗어나므로 개인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간접 외상사건과 같이 지속적이며 간접적인 형태로 누적되는 외상사건스트레스에 대해 경찰관들이 일일이 정서적, 인지적 통제를 발휘하는 것은 업무 소진의 또 다른 역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경찰공무원의 외상경험의 특성상 적응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가설이 가능하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경찰공무원의 외상사건과 PTSD에 대한

예방 및 위기개입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국내 경찰공무원의 외상사건과 PTSD 증상에 대한 적합한 예방 위기관리 프로그램에 있어 동료 및 가족, 사회적 지지체계와 같은 회복적 환경에 기반을 둔 회복지지(supporting) 프로그램이 더 적합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의 외상사건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사회적 개입에 있어서 개인의 특정한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완화시키는지에 대해 초점을 둔 위기개입 프로그램보다 PTSD를 완충하는 회복 환경 요인이 PTSD 증상을 완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스트레스에 작용하는 개인의 특성으로는 대처행동, 방어양식,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평가, 기존의 정신병리의 유무, 이전의 외상경험,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 요인들(나이, 교육수준, 성별)이 포함되며, 회복 환경 요인으로는 사회적지지, 문화적 특성, 지역사회의 견고성, 외상사건에 대한 사회와 가족, 친구의 태도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포함된다.

스트레스 사건과 긴장을 경험하는 개인들은 자신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힘들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통제감(self-mastery)과 자신의 가치에 대한 판단인 자아존중감(self-esteem)을 상실하기 쉬우며, 이런 중요한 자기 개념(self concepts)들의 감소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과정의 결정적 요소이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사용하는 요소들은 스트레스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국내 경찰공무원에서 지지적인 회복적 환경의 필요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 이러한 다수의 연구를 바탕으로 경찰관들의 외상성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활발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외국의 연구들은 동료 경찰관 만큼 그 직업과 경찰관의 고충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음을 지적하며 동료의 지지를 중요시 한다(Stephens & Long, 2000). 또한 가정의 사회적 자본보다 직장의 사회적 자본이 근무중 경험한 외상성 사건의 스트레스 정도를 감소시키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Gachter & Togler, 2009,

재인용). 국내에서는 이옥정(2010)의 연구에서 경험한 외상성 사건의 개수가 많을 때 오히려 직장 동료의 지지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경찰관들의 동료지지 또한 부정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내재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경찰관들의 감정들이 잘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 오히려 역완충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외국과 우리나라 경찰조직의 사회적지지 시스템의 차이를 거론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경찰 조직 내부에 동료지지 프로그램(Peer supporting program)이 활성화되어 있다(Paton et al., 2009). Carlier, Lambert & Gersons(1997)의 연구에서 71.4%의 경찰관들이 외상성 사건 관련 업무 후에 동료지지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서비스를 사용한 경찰관 중 22.3%는 PTSD 발병에 있어서 더 낮은 위험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동료지지 서비스가 PTSD 예방에 보호요인임을 제시하였다. 이는 경찰관의 외상성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접근 방법으로, 양질의 동료관계를 발전시키고 이를 통한 사회적 지지의 정적인 완충효과를 극대화시킴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에 관한 적극적인 개입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찰조직은 이러한 사회적지지 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이며, 경찰관의 자기노출,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자신의 감정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전유진(2010)의 연구 결과로 미루어볼 때, 국내 경찰공무원의 외상사건에 대한 외적 회복환경 요소에 대한 심리적 변인들에 대해 보다 심도있고 활발한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위기개입 및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성을 지적하고 특히, 경찰공무원 조직내 동료간의 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망 형성을 위한 심리치료적 개입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며 집단치료를 활용하여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PTSD 위기개입 및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노력을 제안하는 바이다.

## 2. 연구의 제한점 및 의의

본 연구 과정에서 드러난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주로 경기도 경찰 공무원들이었던 바,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향후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서울·인천·경기 지역 뿐 아니라 다른 지역 경찰공무원들도 연구대상에 포함하여 전국단위 표본을 통해 향후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경찰공무원 조직의 특성 상 별도의 객관적인 평정자(관찰자)가 부재하였고 자기보고식으로만 평정한 측정치에 따른 결과의 신뢰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있겠다.

셋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회복환경 요소인 사회적 지지, 동료-가족지지, 외상사건에 대한 사회와 가족, 친구의 태도, 문화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견고성 등 더 다양한 차원에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경찰공무원의 근속년수, 부정적인 생활 사건 경험과 같은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도 포함하여 연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고은영 (2004). **일부 소방공무원의 업무별 출동 출격후 외상성 스트레스에 미치는 요인**.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순진, 김환 (2000). **충격적 경험의 후유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상심리학시리즈 7**. 서울: 학지사.
- 김정희 (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대학 신입생의 스트레스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희 (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종남, 이민수, 신동균 (1997). **삼풍 사고 생존자들의 임상양상 및 성격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183-195
- 박 경 (2003). **부정적인 생활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문제가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Vol. 8, No. 3, 581-593.
- 박광배 (2003). **변량분석과 회귀분석**, 학지사.
- 박희성, 손정락, 오상우 (1993).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역기능적 태도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2(2), 179-196.
- 신성원 (2006). **경찰공무원의 일상적·직업적 경험이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용섭, 채정민 (1998).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통합적 접근: 충격적인 사건에 따른 심리적 문제의 이해**. 서울: 하나의학사.
- 안현의 (2005).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에 관한 탐색적 연구: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과 성격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5(2),

pp.91-104.

- 염병수 (2006). **사상사고 경험 철도기관사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우종민, 강태영, 이정은 (2005). 지하철 기관사의 운행 중 사고경험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 **대한산업의학회지**. 17(1), pp.36-43.
- 원호택 (1991). 스트레스와 대처방안. **정신건강연구**, 1, 37-50.
- 유지현 (2006). **소방공무원의 PTSD 증상과 정서상태. 대처방식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은헌정, 권태완, 이선미, 김태형, 최말례, 조수진 (2005).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 44(3), pp.303-304.
- 이선미, 김정희 (2002). 버스사고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병 관련 변인.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3), 547-563.
- 이선미, 은헌정 (1999). 한국판 사건 충격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에 관한 연구. **대한 신경정신의학회지**. 38, pp.501-513.
- 이영민 (2008). **지하철 근로자의 직군별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증상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
- 이영자 (1996).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 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옥주 (2002). 고등학생의 성격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양식. **한국심리학회지**. 7(3), pp.487-501.
- 이은희 (2006). 여자대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대처방식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11(1), pp.21-40.
- 이주은 (1995). **우울과 자기지향이 자기지각, 사회적 지지 및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이지영 (2003). 정서지능에 대한 연구 고찰. **학생연구(서울대학교)**, 37(1),

61-77.

- 이지영, 권석만 (2006). 정서조절과 정신병리의 관계: 연구 현황과 과제, **상담 및 심리치료**, 18, 461-493.
- 이지현, 김유숙, 최영안 (2004). 전쟁으로 인한 PTSD 집단과 사고로 인한 PTSD 집단의 MMPI 프로파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23(1), pp.221-229.
- 정문용 (1996). **참전 재향군인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유병상태와 관련 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지선, 안현의 (2008). 청소년 학교폭력의 복합외상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145-160.
- 정희진 (2008). **여성의 복합외상경험이 자기역량의 변화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옥자, 현운강. (2005).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 및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아동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3), 141-161.
- 차보경, 손정남. (2006). 기혼여성의 가정폭력 경험 유무에 따른 스트레스, 분노 표현방식 및 우울. **정신간호학회지**, 15(2), 187-196.
- 최경숙 (2001). **일부 산업재해 환자들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미경 (2003). **생활 스트레스 경험과 지각된 불안 통제감 및 적극적 대처의 비율이 불안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숙경 (2007). **지하철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및 사상사고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한 중재프로그램 효과**.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uthor.
- Baron, R., & Kenny, D.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riere, J. & Scott, C. (2006). *Principles of Trauma Therapy*. Sage  
Prevalence and correlate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 Carlier, I., Lamberts, R., & Gersons, B. (1997). *Risk factors for posttraumatic stress symptomatology in police officers: a prospective analysi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5(8), 498–506.
- Carlier, I., Lamberts, R., Fouwels, A., & Gersons, B. (1996). *PTSD in relation to dissociation in traumatized police officer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3(10), 1325–1328.
- Carlier, I., Voerman, A., & Gersons, B. (2000). *The influence of occupational debriefing on post-traumatic stress symptomatology in traumatized police officers*.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73(1), 87–98.
- Carver, C. (1997). *You want to measure coping but your protocol's too long: consider the brief cop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1), 92–92.
- Carver, C., Scheier, M., & Weintraub, J. (1989). *Assessing coping*

- strategies: A theoretically based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2), 267-283.
- Clair, M. E.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incidents, hostility and PTSD symptoms in police officers (Doctoral dissertation, Drexel University.*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67(06), 3443.(University Microfilms No. 3221871)
- Cohen, S & Wills, T.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Folkman, S., & Lazarus, R. (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3), 219-239.
- Gershon, R., Barocas, B., & Canton, A. (2009). *Mental, Physical, and Behavioral Outcomes Associated With Perceived Work Stress in Police Officer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6(3), 275-289.
- Green, B. (2004).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UK police officers.* Current Medical Research and Opinion, 20(1), 101-105.
- Green, B., Wilson, J., & Lindy, J. (1985). *Conceptualizing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 psychosocial framework.* In C. R. Figley (Ed.), Traumatic and its wake: The study and treatment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Vol. 1, pp. 53-69). Bristol, PA: Brunner/Mazel.
- Harvey-Lintz, T., & Tidwell, R. (1997). *Effects of the 1992 Los*

*Angeles civil unrest: Post traumatic stress Symptomatology among law enforcement officers.* The Social Science Journal, 34(2), 171-183.

Joseph, S., Williams, R., & Yule, W. (1992). *Crisis support, attributional style, coping style, and post-traumatic sympto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11), 1249-1251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LeBlanc, V. R., Regehr, C., Jelly, E. B., & Barath, I.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coping style, performance, and responses to stressful scenarios in police recruits.*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15(1), 76-93

Litz, B., Penk, W., Gerardi, R., & Kraen, T. (1992). *Assessment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P. A Saigh (E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p. 50-84). Boston: Allyn & Bacon

Marchall, E. (2006). *Cumulative career traumatic stress (CCTS): A pilot study of traumatic stress in law enforcement.* Journal of police and Criminal Psychology, 21(1), 62-71

Marmar, C., McCaslin, S., Metzler, T., Best, S., Weiss, D., Fagan, J., et al. (2006). *Predictors of posttraumatic Stress in Police and Other First Responders.*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071, 1-18

- Miller, L. (2006). *Practical Police Psychology: Stress management and crisis intervention for law enforcement*.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 NcEwen, B (1998). *Protective and damaging effects of stress mediators*.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38(3), 171-179
- of depression among refugees from Vietnam: A longitudinal*
- Paton, D., Violanti, J. M., Karena, B., & Gehrke, G. (2009). *Traumatic Stress in police officers: A Career Length Assessment from recruitment to Retirement*.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 Patterson, G. (2003). *Examining the effects of coping and social support on work and life stress among police officer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1(3), 215-226.
- Pearline, L., & Schooler, C.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1), 2-21
- Pearline, L., Menagehan, E., Lieberman, M., & Mullan, J. (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4), 337-356.
- Sarason, I. G., Johnson, J. H., Berberich, J. P., & Siegel, J. M. (1979). *Helping police officers to cope with stress: a cognitive-behavioral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7(6), 593-603
- Stephens, C., & Long, N. (2000). *Communication with police supervisors and peers as a buffer of work related*

*traumatic stres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1(4), 407-424

Thoits, P. (1995).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processes: Where are we? What nex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5, 53-79.

Thomas-Riddle, R.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work stress, and traumatic stress and burnout and cynicism in police offic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ted States International University, San Diego, California.

Tremblay, C., Hebert, M., Pichec, C. (1999). *Coping strategies and social support as mediators of consequences in child sexual abuse victims*. Child Abuse & Neglect, 23(9), 929-949. Vol 1(2), pp. 151-157.

경찰청 홈페이지 통계자료. (2009). 경찰관 순직, 공상발생 현황.

‘극단적 선택’ 경찰 1년새 3배 ↑. (2009. 11.12). *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um=507659&sid=E&tid=0>

현직 여주경찰서장 관사에서 투신자살. (2009. 11. 18).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11/h2009111122463521980.htm>

‘우울증세’ 경찰관 잇단 자살, 예방대책 ‘절실’. (2009. 12. 27). *연합신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942685>

## ABSTRACT

The Relation of a Type of Traumatic Events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Symptoms of Police  
officers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tress  
Coping Style

Ja-Hye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arry out the relation of a type of traumatic events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symptoms of police officers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style.

The Questionnaires contained a series of assessing their level of traumatic events, impact of events and coping style. The Experiences of traumatic events Scale, Impact of Event Scale-Revised(IES-R), and The

Brief COPE were administered to 450 police officers working in Kyoungki. To test the hypothetical model, SPSS 18.0 statistical analyses are used. The results were followed.

(1)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direct traumatic events and the indirect traumatic events were predictive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symptoms. In comparison of the differences in PTSD symptoms according to a type of traumatic events showed that the effect of the indirect traumatic events on PTSD symptoms was greater than the direct traumatic events. (2) The traumatic events didn't decrease PTSD symptoms through interacting with stress coping style. Results have shown that dysfunctional stress coping style could influence PTSD symptoms through main effects. Finally,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 부 록

## 부록 1. 질문지

- 1)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특징
- 2) 외상성 사건 경험 척도
- 3) 사건충격척도 (IES-R)
- 4) 스트레스 대처양식(The Brief COPE)



II. 다음은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입니다.

- (1) **경찰관 재직 중 경험한 사건**에 대해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 (2) 경험한 사건에 대해 **본인이 겪은 정신적 충격**은 어느 정도였는지 1~5 사이의 숫자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경험한 직무관련 사건	(1) 경험한 사건		(2) 겪은 스트레스				
		있다	없다	전혀 없다	별로 없었다	보통	심했다	매우 심했다
1	(타인이 나에게 충기, 흉기 등을 겨누는) 치열한 물리적 충돌을 경험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근무 중 타인에게 충격 및 충기를 겨누었다.			①	②	③	④	⑤
3	근무 중 타인에게 (충기를 제외한)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	근무 중 흉기에 의해 부상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5	근무 중 (흉기에 의하지 않은)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6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위협(협박)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고속의 차량 추격전을 경험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8	위험한 영장을 집행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9	근무 중 심각한 차량사고 (본인이 운전 또는 탑승한)를 경험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0	근무 중 동료 경찰관이 사망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1	근무 중 동료 경찰관이 부상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12	동료 경찰관이 자살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3	동료가 아닌 경찰관이 부상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14	근무 중 사체 (자살, 변사사건)를 목격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5	근무 중 살해당한 (타인에 의한 죽음) 사람을 목격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6	폭행당한 사람을 목격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7	강간당한 사람을 목격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8	납치당한 사람을 목격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9	성폭행 당한 어린이를 목격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0	학대받거나 방임된 어린이를 목격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1	근무 중 심각하게 부상당한 사람을 목격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2	자연재해 (수해, 산불 등)에 대한 대응을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3	인재 (비행기 추락, 건물 붕괴, 방화)에 대한 대응을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1-3. 사건의 충격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

II. 다음은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그 이후에 경험할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위에서 경험했다고 표시한 여러 사건들 때문에 지난 한달 동안 아래의 증상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해당되는 정도에 √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경험한 증상	없다	드물게 있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1	그 때의 일이 생각났고, 그때의 느낌도 되살아났다.	①	②	③	④
2	밤에 잠을 설쳤다.	①	②	③	④
3	다른 일로 인해 그 때 일이 생각났다.	①	②	③	④
4	짜증나고 화가 났다.	①	②	③	④
5	그 일을 생각하거나 기억하게 되면서 흥분되었다.	①	②	③	④
6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일이 생각났다.	①	②	③	④
7	마치 그 일이 없었거나 사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8	그 일을 생각나게 하는 것은 피했다.	①	②	③	④
9	갑자기 그 때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①	②	③	④
10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잘 놀랐다.	①	②	③	④
11	그 일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12	그 일로 아직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①	②	③	④
13	그 일로 인해 무감각해지는 걸 느꼈다.	①	②	③	④
14	마치 그 당시로 되돌아 간 듯이 느끼고 행동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①	②	③	④

15	그 일이 떠올라서 잠들기가 어려웠다.	①	②	③	④
16	그 일과 관련된 감정이 불쑥 북받쳐올랐다.	①	②	③	④
17	그 기억을 지워버리려고 애썼다.	①	②	③	④
18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①	②	③	④
19	그 일을 생각하면 식은땀이 나거나, 호흡장애, 현기증 또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등 신체적으로 반응하였다.	①	②	③	④
20	그 사건에 대해 꿈을 꾸었다.	①	②	③	④
21	내가 매우 조심하며 경계하고 있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22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으려고 했다.	①	②	③	④

부록 1-3. 스트레스 대처 양식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

IV. 다음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을 때 취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대처행동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동		전혀 안함	조금 사용	보통 사용	많이 사용
1.	믿음이나 종교에서 위안을 찾으려 한다.	①	②	③	④
2.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곰곰이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긍정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 다른 측면에서 그 문제를 보는 것을 시도한다.	①	②	③	④
4.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무언가에 노력을 집중한다.	①	②	③	④
5.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 술을 마신다.	①	②	③	④
6.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7.	그 일에 대해 농담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8.	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기를 거부한다.	①	②	③	④
9.	자신을 비난한다.	①	②	③	④
10.	기도나 명상(묵상)을 한다.	①	②	③	④
11.	마음을 분산시키기 위해 일을 하거나 다른 활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12.	상황이 나아지도록 행동을 취한다.	①	②	③	④
13.	다른 사람의 위안이나 이해를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14.	그 일에서 무언가 좋은 측면을 찾아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15.	무엇을 할지에 대해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도움을 구한다.	①	②	③	④
16.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려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17.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조언을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18.	그 일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포기한다.	①	②	③	④
19.	그것에 대해 덜 생각하기 위해 영화를 보러가거나 TV시청, 독서, 수면 등과 같이 무엇인가를 한다.	①	②	③	④
20.	“그것은 사실일 리가 없어”라고 나 자신에게 말한다.	①	②	③	④
21.	괴로운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슨 말이든 한다.	①	②	③	④
22.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스스로를 자책한다.	①	②	③	④
23.	문제를 다룰 때 유머를 사용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24.	그 일을 극복하기 위해 술을 마신다.	①	②	③	④
25.	그 일에 대처하기 위해 무엇인가 시도하는 것을 포기한다.	①	②	③	④
26.	다른 사람의 정서적 도움을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27.	그 일이 일어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28.	그 문제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①	②	③	④